

대환난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3)

- 읽을 말씀 계 12:1-17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라 말세에 나타날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광야로 도피한 여인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 광야로 도피한 여인도 교회가 아니라 믿는 유대인이다.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적의 원어 ‘세메이온’은 “표시, 표적”이라는 뜻으로 꼭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적은 상징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뒤에 해를 옷 입고, 발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자(1)라는 상징이 나옵니다. 이 상징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계시록 12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은 “한 때 두 때 반 때” (14) 라는 표현을 통해 다니엘 70이레의 마지막 이레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교회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자를 교회(혹은 하나님의 백성)로 봅니다. 또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님이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바로 뒤에 천이백육십 일이 나오고 그 뒤는 재림이기 때문에(계 12:5-6) 문맥적으로 맞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서 마지막 왕국인 로마에서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의 징조를 말하다가 바로 대환난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 관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 70이레도 69이레와 70이레 사이에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격을 캐치하지 못한 결과 많은 분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교회시대로 착각한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보여주듯이 계시록은 다니엘의 후속판이자 완결판입니다. 따라서 두 책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 는 다니엘 70이레의 마지막 이레의 후반(대환난)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광야로 피신하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신실한 유대인과 신약시대의 유대인 크리스천을 포함한 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요셉의 꿈과 여자에 관한 묘사가 일치한다.

여자에 대한 묘사는 요셉의 꿈이 생각납니다(창 37:9-11). 야곱은 그 꿈에서 해는 야곱 자신, 달은 레아,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요셉과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함이 분명합니다.

2) 본문의 여자는 신부가 아니라 어머니다.

많은 이들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재림 때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3)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다니엘의 예언과 일치한다.

다니엘은 대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들 즉 구원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도망하여 화를 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12:1). 그런데 예언 그대로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고(계 12:6), 도망간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대환난입니다(계 12:14). 게다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에서 따온 표현입니다(출 19:4). 그러므로 광야로 도망하는 여인은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과 일치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15)...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20)**”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것은 이중예언으로, 1차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2차로 적그리스도가 일으킬 대환난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믿는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기억하고 피신하여 화를 면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대환난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경고를 믿고 자발적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대환난 때도 이 예언을 믿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도망하여 화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5)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11장 1-2절과도 일치한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측량은 그들을 마흔두 달 동안 즉 대환난 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로 도망해서 보호받는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6)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아야 남은 자손이 이해가 된다!

많은 이들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자를 교회로 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의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표현을 볼 때 그 전 자손도 있을 것입니다.

첫 자손에 관한 기록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5)**”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 아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둘인데, 하나는 예수님이고(시 2:1-9, 계 19:11-15), 다른 하나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입니다(계 2:26-27). 그런데 남자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단수 즉 한 명입니다. 또 대환난이 오기 전에 보좌로 올라갔는데, 통과설이므로 성도라면 이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휴거한 자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계 12:5)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마 1:1)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롬 9:4-5). 그러므로 남자아이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교회라면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둘 다 교회라면 둘 다 광야로 피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구약의 신실한 유대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포함한 참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모순을 피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듯이, 교회 역시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아야

교회를 여자의 남은 자손 이라고 표현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7) 대환난 때 교회 전체가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16절을 통해 ‘여자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과연 교회가 대환난 때 보호를 받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환난 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7:21). 여기서 ‘이기다’ 는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죽이는 것 즉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 (7:25)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12장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6-7) 고 했는데, 이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대환난 때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게다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을 기록한 다니엘 12장에도 믿는 유대인들은 화를 면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1).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대환난을 교회가 아닌 유대인 중심으로 풀면,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계시록의 대환난과 관련된 기록들이 술술 풀립니다. 이것은 계시록 해석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 나눔과 적용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은 대환난 때 보호를 받습니다. 원수요 핍박자였던 이스라엘에 대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